

‘골드’ 전남

해남 ‘은산광산’서 한국 금 생산량 99% 차지

매장량 5t... 銀도 99.78%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금·은의 99% 이상이 전남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총북이나 경남 등에도 금·은 광산이 있지만 그 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남의 생산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최근 지난 2011년과 2012년 전남통계연보,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등을 참고해 ‘비교우위자원’ 153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자원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금과 은. 2011년 전남통계연보에 따르면 금과 은은 전남에서 21만 4350g, 257만 3300g이 나와 전국 생산량 21만 5420g, 257만 9090g의 각각 99.50%와 99.7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남도의 금·은 생산량이 많은 이유는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에 있는 ‘은산광산’ 때문이다.

2001년 말 채광인가를 받은 이 광산은 최근까지 대기업에서 운영하다가 골드선(주)이라는 중견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광산

의 지난 2008년 금·은 생산량은 16만 3560g, 141만 141g였으나 지난 2011년 21만 4350g, 257만 3300g, 2012년에는 33만 5640g, 296만 7800g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금이 생산되는 총북 4곳, 경남 2곳 등 금광 6곳의 생산량은 각각 141~5087g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 일제강점기 유병한 금광이었지만 매장량이 거의 소진되면서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으나 해남의 은산광산은 채굴을 시작한 지 13년째의 ‘신생’ 광산이어서 생산량 격차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골드선 측은 금·은을 총남의 제련회사에 넘겨 2012년 각각 106억 100만원과 30억 24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은산광산에 매장돼 있는 금이 약 5t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골드선 관계자는 “금광석에서 금과 은을 모두 채취하는 것으로, 은산광산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금광”이라며 “금광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은산광산 금·은 생산량

	금	은
2008년	16만3560g	141만g
2011년	21만4350g	257만3300g
2012년	33만5640g	296만7800g
매출액 (2012년)	106억100만원	30억2400만원



전남 녹차·매실·키조개... 전국 생산량 100%

전국 생산량 100% 전남 10대 품목



녹차, 매실, 유자, 무화과, 매생이, 청각, 뭇, 대하, 키조개, 준치, 명반석 등은 전국 생산량 모두를 전남이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99.57%), 전복(99.23%), 다시마(93.95%), 김(93.02%), 미역(90.14%) 등도 거의 전남에서 생산을 독차지하고 있다.

편백나무와 대나무 숲은 오로지 전남에서만 만날 수 있다. 전라남도가 전국 16개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진 자원 153개를 분류해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안선의 경우 섬까지 포함하면 전국 6281.49km 가운데 57.23%인 3594.82km가, 유인도 수는 전

국 486개 중 60.91%인 296개가 각각 전남의 몫이다. 미곡은 20.49%, 맥류 39.18%, 두류 18.5%, 채소 23.33% 등 농산물의 경우 최저 10% 후반에서 최고 40%에 이르는 점유율을 보였다. 가축 가운데 오리가 554만 4166마리가 사육되고 있어 전국 (1273만 5187마리)의 45.53%를

차지했으며 수산물 중에서는 갯장어(79.49%), 꼬막(79.00%), 민어(71.68%), 능성(69.23%), 젓새우(67.71%), 낙지(67.09%) 등의 비중이 높았다. 죽순(83.79%), 약용산수유(40.79%), 버섯(29.53%), 산나물(25.23%) 등도 전남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 중단

전국 지자체 중 첫 사례... 맥쿼리측에 통보

광주시가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한 민자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한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자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재정법, 광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첫 사례다.

광주시는 24일 “광주 순환도로투자(맥쿼리)를 상대로 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과 별도로 재정지원금 중지 처분을 위한 청문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맥쿼리측에 지원 중단 통보했으며 행정 절차를 거쳐 3월 말에 최종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0년 제2순환도로 1

구간 민간사업자인 맥쿼리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추정 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금액을 보조금(MRG)으로 지급했으며, 현재까지 1393억원에 이른다. 시는 그러나 맥쿼리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대주주 등에게 1401억원의 추가 이자를 지급해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 등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의 자본금(2012년 말 현재 543억)과 차입금(268억)이 원상회복되고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853억)가 소멸할 때까지 재정 지원을 중단

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본구조를 왜곡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맥쿼리에 더 이상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면서 “2003년부터 지급된 보조금도 목적외로 사용한 것이 입증된다면 환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1년 10월 맥쿼리측에 자본구조를 2000년 12월 실시협약 당시 상태로 복구시키도록 감독명령했다.

맥쿼리측은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맥쿼리측이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이에 맥쿼리측이 대법원에 상고해 계류 중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농업 최대 회의’ ICID 광주총회에 북한 초청 추진

오는 9월 열리는 ‘2014 ICID(국제관개배수위원회) 광주총회’에 북한을 초청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월14일부터 1주일간 광주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광주총회의 공동위원장인 박재순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4일 “1969년 우리나라가 ICID가입한 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광주총회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광주 힐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ICID 광주총회 개최 준비를 위한 워크숍’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교채널과 중국 가오자나 ICID회장 등을 통해 북한을 초청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면서 “남북통일을 앞두고 북한의 농업개발과 산림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회 준비현황을 점검한 가오자나 ICID회장 등은 행사를 둘러보고 회의장소와 숙박시설, 식당 등이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하다고 극찬했다”면서 “앞으로 성공적 대회를 개최를 위해 소홀함이 없이 차근차근 준비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광주총회는 지난해 630여명이 참석한 터키대회와 비교가 될 정도로 60여개국에서 1200여명이나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면서 “인천공황에서 리무진 버스를 이용해 광주로 오는 방안을 비롯해 인천공항→용산역→KTX→광주, 인천

공항→김포공항→광주 등의 다양한 교통편을 마련해 각 나라의 희망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개발도상국 라운드테이블과 관계배수기술 및 물관리 정책에 대한 공유 세션 등을 통해 ICID총회를 국가 간 농업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한편 ICID 총회는 전세계 96개 회원국과 UNDP, WB, WMO 등 50여 국제기구가 참여해 물, 농업, 환경, 식량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제학술회의로 농업분야 최대 회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가구당 소득 2년 모아야 광주 전세 마련

광주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금이 도시 근로자 가구의 2년치 평균 소득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동안 번 돈을 곁 한푼 안 사고 모아야 간신히 전세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114는 24일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 707만여 가구의 전세금과 통계청의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 기준) 소득을 비교한 결과, 이처럼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광주지역 근로자 가구 연

소득 평균은 5527만원이었고, 아파트 전세의 평균은 1억1551만원이었다. 연소득보다 아파트 전세금이 2배 가량 많아, 2년치 연봉을 모두 모아야 전세 자금을 채울 수 있는 셈이다.

또 서울은 평균 전세가격이 3억 1265만원으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연간 소득(5527만원)의 5.6배에 달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도시근로자 가구가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면서 모을 때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 보증금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

평균 연 소득 5500만원

전세기는 1억1500만원

6개월 이상 더 늘어났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은 4.1년치, 전국은 3.3년치의 소득에 해당되면서 소득 대비 전세금 부담이 모두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분석 대상 기간인 최근 10년(2004~2013년) 중 최고치였다.

수요가 많은 공급 면적 99~132㎡ 미만(30평형대) 크기 아파트의 소득 대비 전세금 비율은 서울이 5.87배, 수도권이 4.35배, 전국이 3.63배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3(226)-홍-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 Kamra Inlay를 이용한 기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랑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